

용서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May 23

• 마태복음 6:11-12, 14-15

건강한 영혼은 용서받음과 용서함의 은혜를 모두 누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 굳게 닫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기준의 '유책' 이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피해자이며 희생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십시오. 선택과 결정의 순간, 사안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까? 한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는 반복되는 문제와 상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도 이 문제(사람)는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서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용서는 없던 일로 하거나 그냥 덮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와 상처를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황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아픔으로 하나님께조차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닫아 두었던 그 영역을 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상황과 관계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도록 영역과 주권을 내드리십시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나와 너'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 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